

인도 계획위원회, 제12차 경제개발계획 목표성장률 하향조정

(2013. 7. 30)

뉴델리사무소

□ 인도 계획위원회, 평균 성장률 8%에서 7%로 하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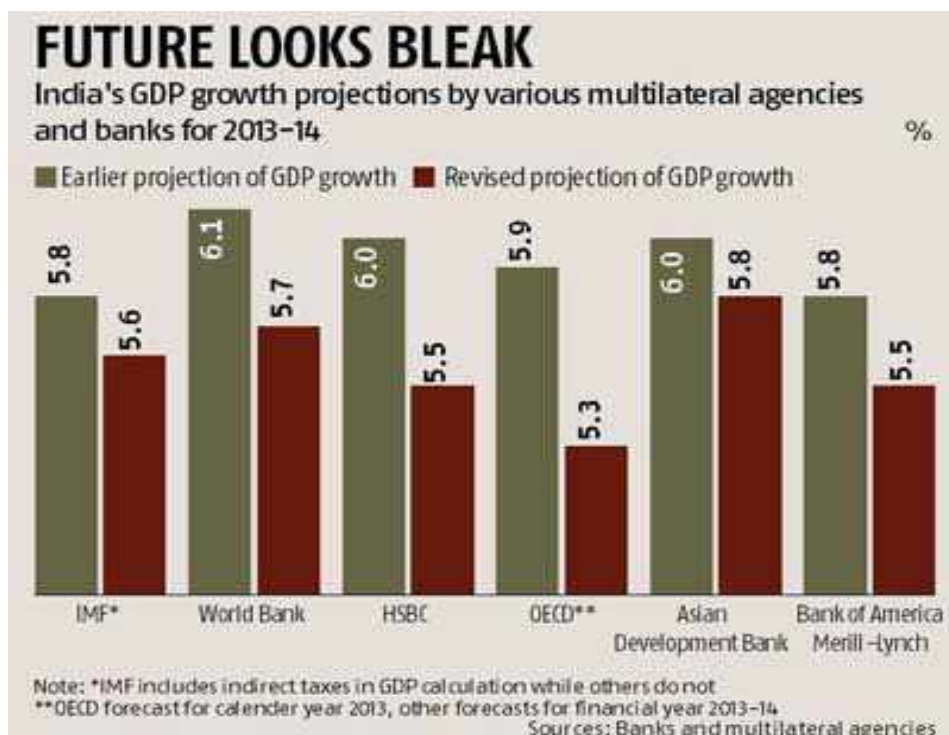
- 인도 계획위원회(Planning Commission)는 계속되는 인도 경기침체에 따라 제12차 경제개발계획(2012~2017년) 기간 중 연간 GDP 평균성장률을 당초 8%에서 7%로 하향조정함.
 - 인도 중앙통계청(Central Statistics Office)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첫 번째 해인 2012/13회계연도의 GDP성장률이 5%, 2013/14회계연도에는 6.1%~6.7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함.
 - 인도 계획위원회는 최근 미국 연준(Fed)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루피화가치 급락과 외화유출의 가속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 -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목표 성장률인 7%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매년 8%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, 인도 계획위원회의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.

□ 주요 국제기구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

○ ADB는 2013/14회계연도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6.0%에서 5.8%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으며, 향후 2014/15회계연도 성장률은 6.5%로 예측함.

- 한편, IMF 등 국제기구들과 주요 은행들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최근의 대규모 자본유출 및 루피가치 급락 뿐만아니라 저조한 산업활동 및 느린 구조 개혁 등으로 인해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.

주요 기관 및 은행의 2013/14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 전망



자료원 : Business Standard 등 언론종합